



2면

'전북 농식품 고용혁신 사업단' 출범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9월 3일 화요일 (음 8월 1일) 제3580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계획 확정

전북자치도, 재난지원금 233억 추석 전 지급 추진
공공시설 1924억 신속 투입

피해 해결 개선복구 선정 지방비 572억 예산 절감



추석 앞두고 한산한 전통시장

추석 연휴를 2주일 앞둔 2일 전주 모래내시장이 찾는 시민들 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시 제공)

전북자치도는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전북 도내에는 평균 265mm의 강수량이 기록되었으며, 특히 익산시 함라면에는 483mm, 군산시 어청도에는 472mm의 강수량이 쏟아졌다. 군산시 어청도에서는 7월 10일, 기상 관측 이래 1시간 강수량 최대치인 146mm를 기록하며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 총 2,157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이 중 사유 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233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924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이 중 1,627억원은 국비(75.4%)로 지원된다.

특히, 이번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산, 익산, 완주, 무주 등 4개 시군이 우선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익산, 완주, 군산 성산면·나포면, 무주 무주읍·설천면·부남면 등 4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복구비 중 국비(1,627억원) 분담률을 50%에서 75.4%로 25.4% 상향시켜 도 지방재정

부담을 크게 덜어 주게 됐다. 또한, 도비 100%로 시행돼야 할 하천 개선복구비(4건 1,143억)에 대해서는 572억의 국비를 지원받아 지방비를 크게 절감하게 됐다.

사유 시설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233억원이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 중 35억원의 도비 부담분은 예비비를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며, 도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한시적 정책에 따라 농기계와 생산설비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국제 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재해 복구 자금 융자 등 18개 분야 간접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이 포함된

총 30개 분야의 간접 지원 서비스가 추가 제공된다. 한편, 7월 호우로 인해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2만6,622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유 시설 피해는 2만 6,187건, 공공시설 피해는 435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액은 587억원으로, 이는 전국 피해액 3,182억원의 18.5%에 해당한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유 시설 피해는 14개 시군 2만 6,187건으로 주택 침수 634동, 농작물 피해 2,266ha, 농경지 매몰 등 115ha, 소상공인 2,590업체 등 198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5개 시군(익산, 군산, 완주, 진안, 무주) 435건으로 지방 하천 43건, 소화천 139건, 소규모시설 127건 등 389억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공공시설의 응급 복구를 완료한 상태이며, 2024년 본예산에 복구비를 반영해 조속히 복구작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원적인 피해 발생 원인을 개량하는 지방하천 개선복구 사업을 정부에 건의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 예비비를 긴급히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추석 이전에 조속히 지급하겠다"며, "가을철 태풍에 대비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취약지역 예방 및 정비를 지속 실시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피해 시설은 신속히 복구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내 우수 농특산물 최대 40% 할인

고물가 시대, 추석 준비 전북 생생마을 장터에서

도 '한가위 큰장터' 6-7일 도청 서편 광장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북의 자연에서 길러낸 우수한 농특산물을 온·오프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는 지리가 마련된다. 품질 좋은 상품을 판매해 농촌 마을에 활력을 전하고, 도민에게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15회 생생마을 한가위 큰 장터' 직거래 행사가 오는 6일 개장해 7일까지 이틀간 도청 서편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한가위 큰 장터는 기존에 개별로 추진되던 생생 장터, 축산물, 수산물 관측 행사를 통합 연계해 운영된다.

이번 한가위 큰 장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 정보화 마을협의회, 경제통상진흥원, 사회적기업협동조합지원센터, 전북특별자치도공역지원센터, 참예우·축협·하림 등 축산물 8개 단체가 참여해 판매부

스 45개, 기관홍보 10개 등 총 55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판매 부스에는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농촌 마을과 마을기업 등 42개 업체가 직접 생산한 우수 농·축·수산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간 동안 도청마당에 55개 부스가 설치돼 130여 개의 품질 좋은 상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농촌 마을은 활력을 찾고 도민들은 우수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특히, 모든 제품을 10%에서 최고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고물가 시대 도민이 추석 상을 차리는 데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비단 한가위 큰 장터 오프라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북생생장터(www.freshjb.com) 온라인 장터를 통해서도 한가위 프로모션을 병행할 계획이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도내에서 가장 전통이 있는 생생마을 한가위 큰 장터가 농어업인, 축산인, 도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생산자와 구매자가 모두 즐거운 행사로 개최할 계획이다"며,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가장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도민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탄소산업, 상하이에서 세계를 만나다

자치도, '2024 상해 복합소재 산업 박람회' 서 전북관 운영 도내 탄소기업 우수 제품 선보여

전북자치도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소재 산업 박람회인 '2024 상해 복합소재 산업 박람회(China Composites Expo 2024)'에서 전북관을 운영하며, 도내 탄소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선보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CCE(이하 박람회)'는 2일부터 4일까지 상하이 국제회의전람센터(NECC)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800개 이상의 복합 소재 관련 기업들이 참가해 첨단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전북관에서는 도내 탄소 기업 6개 사가 각각의 독창적인 제품을 선보이며, 탄소 소재를 비롯해 복합 소재 활용 부품, 항공우주 등 최신 기술과 제품을 소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전 세계 바이어들과 잠재고객들의 이

목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관에 참가하는 기업으로는 △데코카본(탄소 브레이크 디스크) △대주코레스(자동차 범퍼 빔) △GTA에어로스페이스(항공기 객실 창문 덮개) △씨디엘(헬로 엔드핀) △더데움(광장축

연 방열복합소재) △더모아나도(탄소 나노섬유 응용제품)이다. 또한, 전북관에서는 새만금 산업단지 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전북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프

로그램도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람회 기간 중에는 지난해 전북자치도와 상해상운무역유관공사, 탄소수소산업연구조합 간의 업무협약의 성과로, 도내 탄소 기업과 중국 기업 간의 구체적인 비즈니스 매칭과 오프라인 상담도 진행된다. 전북자치도는 '탄소 산업 국제 기술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내 탄소 기업의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탄소 기업의 기술력과 제품을 국제

시장에 홍보하며,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의 국제 교류를 확대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재길 전북자치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는 전북자치도 내 탄소 기업의 우수 제품과 혁신 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북의 탄소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미륵사, 천년의 빛
미륵사지, 1400년의 비밀을 탐험하다

2024 익산 미륵사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2024. 9. 6(금) ~ 10. 6(일) 익산 미륵사지 일원

2024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익산 | 미륵사지

주최/주관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